

저는 지금까지 살고있는 부산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부산은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역사적인 유적지와 관광지도 많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가을이기 때문에 부산의 주변에 있는 경치가 좋은 곳도 있고 아름다운 바다도 접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무렵은 부산의 제일의 축제가 된 “부산국제영화제”는 어느정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번을 포함해서 4회째입니다. 일본인도 많이 왔습니다. 부산과 일본은 제일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일년내내 일본관광객은 점점 늘어나갑니다. 특히 지금은 가을이기때문에 단풍놀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등산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중요한 재산은 뭐라고 해도 해수욕장입니다. 부산은 한국의 다른 지방보다도 따뜻한 기후이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시원하고 초밥과 회도 맛있는 곳입니다. 부산의회는 신선한 생선이기 때문에 전국에서도 유명한 것입니다. 부산은 옛부터 일본의 서일본과 많은 왕래를 행하였습니다. 조선시대때에는 조선통신사가 몇회가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 역사는 고려시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 이 통신사는 조선의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에 도착해서 대마도를 통해서 일본에 갔습니다. 그 친한 관계는 부산과 일본의 대마도가 끌어낸 것이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1년에 한번정도 부산시가 통신사의 사명에 따라서 대마도에 인원을 모아서 축제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시의 의회장도 직접 가는 행사입니다.

저도 참가한적이 있습니다만 그 계기로 일본을 좀더 이해하는 찬스가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지금도 부산은 일본과의 관계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옛날의 조선시대의 통신사 대신에 민간외교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떤 나라보다도 가까이 나라이기 때문에 문화의 영향을 주고 얻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양국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곳으로 부산이 먼저 앞서 나가는 것이 되면 전의(앞의) 역사에 좀더 도움이 될 수가있다고 생각합니다.